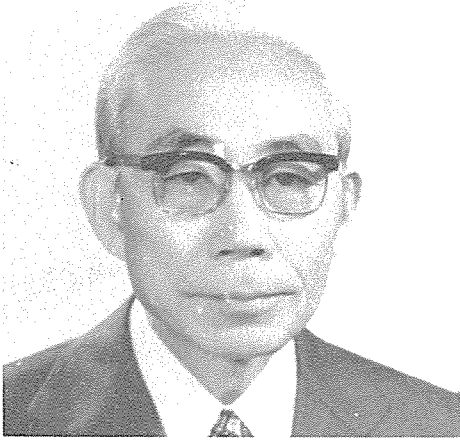


현사시나무로 有名한 世界的인 林木育種學者



玄信圭 博士
(1911 - 1986)

현사시나무로 有名한 우리나라 林學界의 泰斗, 香山 玄信圭博士는 外國에서 오히려 널리 알려진 世界的인 林木育種學者였다.

水原高農을 거쳐 日本 九州帝大 林學科를 졸업하고 同大學에서 森林土壤學을 강의하며 연구를 계속하던 중 극심해지는 폭격에 못이겨 海방직전에 귀국, 母校(현재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해방후 일시 林業試驗場長과 農村振興廳長을 지내면서 林業試驗事業의 正常化와 農村진흥사업의 쇄신에 헌신하였다.

이런 일들이 軌道에 오르게 되자 다시 母校에 들어가 정년때까지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 林木育種研究所를 창설하여 그것을 세계적인 研究所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년퇴직 후에는 이 研究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연구를 계속하였고, 1986년 9월 11日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된 世界山林大會에서 研究論文을 발표하여 大會史上 最老發表者로 國內외의 젊은 學者들

에게 큰 교훈을 남겼으나 애석하게도 과로로 인해 귀국 2개월후에 향년 75세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1951년경 미국의 山林遺傳研究所와 캘리포니아 大學에서 연구하고 돌아온 후부터 育種研究가 가속화되어 林學에 몸담아온 50여년간 1백여편에 달하는 林業 또는 林學에 관계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선생이 育種한 현사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이태리포플러등 유망수종은 우리나라의 山野뿐만아니라 멀리 外國에도 식재되어 자라고 있다.

秀型木을 선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深山奧地를 여러차례 踏査한바 있고 導入樹種을 위해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外國에 나가 선정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현재 林木育種研究所에는 70여개국에서 300여 품종이 導入되어 자라고 있으며 이 研究所의 연구사업은 세계 育種學者들의 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

이러한 功勞로 그동안 學術院學術功勞賞, 大韓民國文化勳章, 3·1文化賞, 5·16民族賞, 수당科學賞, 國民勳章 무궁화章등을 받았다.

玄博士는 學會活動에도 남달리 정열을 기울였다. 12년간 韓國林學會長을 지내면서 큰 學會로 育成하였고, 韓國育種學會長, 韓國農業科學協會長, 太平洋學術協會常任委員, IUFRO評議員, 學術院會員, 韓國林學會고문 등을 지냈다. 또한 世界林學會 學術大會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科學技術交流에 크게 이바지했다.

後學들이 평소에 香山선생을 우러러 모신것은 이러한 學問的 業績만에 緣由한 것은 아니다. 學行이 一致하는 고매한 人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예를 들면 學者의 가난한 살림속에서 5·16民族賞, 3·1文化賞의 賞金과 回甲을 위해 弟子들이 얼마간 모은 祝儀金까지도 全額 내놓아 香山獎學會를 만들어 공부하는 後學들을 격려해준 처사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人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人品때문에 林業이나 林學을 떠나서라도 香山 선생은 늘 後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權 五 福

(韓國林學會長 · 江原大 林科大 교수)